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560만 달러 규모의 올버니 지원형 주택 프로젝트 완료를 발표

HIV/AIDS를 앓고 있는 장기 노숙자를 위한 아파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 지역에서 HIV/AIDS를 가진 장기 노숙인들을 위한 560만 달러 규모의 생활 지원 주택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6,000 제곱 피트 면적의 새로운 올버니 데미안 센터(Albany Damien Center)는 18개의 스튜디오 아파트와 2개의 원룸 아파트로 구성된 20개의 영구 지원 아파트를 HIV/AIDS를 앓고 있는 22명의 장기 노숙인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은 우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올버니에서 새로 개발한 지원형 주택으로 주도 지역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데미안 센터는 HIV/AIDS를 앓고 있는 장기 노숙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의료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존의 오래된 건물과 올버니의 파인 힐(Pine Hills) 주택구에 대한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데미안 센터는 전국에서 HIV/AIDS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첫 번째 보호소이며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원래 사우스레이크 대로(South Lake Avenue)에 있던 사무실이 2013년에 화재로 붕괴한 후 현재까지 임시 거처에서 운영됐습니다. 새 건물은 11월 6일에 개방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주택은 HIV/AIDS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효과적인 치료에 매우 중요하여 이들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바이러스가 다시는 검출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높여줍니다. 데미안 센터는 2013년의 화재 이후의 비극으로부터 지원형 아파트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설을 지으면서 대성공으로 바뀌었습니다. 데미안 센터와 같은 기관의 도움으로 뉴욕은 이 유행병을 소멸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의 새

건물 기공식을 위해 이 자리에 있었으며 지금은 우리가 계속하여 삶을 바꿔주는 센터로 향한 문을 여는 데 함께 하여 영광입니다.”

메디슨가(Madison Avenue)에 자리 잡은 새 데미안 센터는 지원형 주택 서비스와 이전에 공간 부족으로 할 수 없었던 서비스들을 제공하며 직원들을 고용하여 지역 커뮤니티에서 매년 400 명 이상의 HIV/AIDS 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서비스의 확장으로 올버니에 23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에는 두 개의 보호실 구역, 완전한 장비를 갖춘 부엌, 식품 저장실, 상담 및 지원 그룹 사무실, 신체단련실, 센터의 PAWS 프로그램을 위한 애완동물 목욕대, 컴퓨터방, 치료 방 및 더 넓은 주민 구역과 센터 내 회원 및 세입자들에게 약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약국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태양열 패널과 발전기를 설치하여 최고의 에너지 효율 등급(LEED Gold)을 받았습니다.

560 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 임시 장애 및 장애인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의 노숙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Homeless Housing and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430 만 달러를 지원받고 뉴욕주 기숙사 관리공단 (Dormitory Authority of New York)으로부터 269,000 달러의 지원받았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계속하여 우리의 가장 취약한 뉴욕시민들의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미안 센터와 같은 프로젝트는 장기 노숙인들에게 평화로운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만이 아니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뉴욕주 기숙사 관리공단의 회장 겸 CEO Gerrard P. Bushell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ASNY 는 이런 보조금이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에 대한 저렴한 주택 제공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거환경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 한 사람도 길거리에서 생활하지 않게 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형 주택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증명된, 고효율의 전략입니다. 26,000 제곱 피트의 새로운 부지에 건설한 올버니 데미안 센터는 HIV/AIDS 를 앓고 있는 장기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서비스 제공을 도울 것입니다. 저는 이 주택 개발이 실현되도록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바쳐온 Cuomo 주지사와 임시장애 및 장애인 지원국의 Sam Roberts 커미셔너에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Patricia Fah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올버니에 새로 지은 멋진 데미안 센터에서 주지사님의 약속으로 HIV/AIDS 를 앓고 있는 장기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형 주택 개발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센터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증명된 해결책에 대한 효율적인 공공 투자 및 오래된 주민 구역에 대한 복구 및 건설을 자극하는 놀라운 집합체입니다.”

올버니 카운티의 **Daniel P. McCo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HIV/AIDS 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AIDS 의 날을 맞으며 올버니 데미안 센터의 개관식은 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센터의 필요성을 알아주신 **Cuomo** 주지사님과 그 고마움을 아는 우리 커뮤니티의 인정, 친절과 지원에 감사합니다.”

Kathy M. Sheehan 올버니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의 진정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Cuomo** 와 뉴욕주 임시장애 및 장애인 지원국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시설은 데미안 센터가 주도지역 전체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HIV/AIDS 를 앓고 있는 장기 노숙인들에게 지원형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데미안 센터의 **Perry Junjulas** 대표와 전체 팀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Perry Junjulas 올버니 데미안 센터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이번 투자는 뉴욕주에서 AIDS 유행병을 퇴치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HIV/AIDS 감염인들에게 있어 주거 지원이란 의료적 건강 관리를 뜻하는바, 올버니 데미안 센터는 그와 같은 토대를 구축하여 모든 사람이 각자 자유롭게 필요한 의료적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IV/AIDS 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뉴욕주가 가장 긴요하면서도 부족한 것이 주거환경입니다. 2014 년에 데미안 센터 회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0%가 HIV 진단을 받고 난 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노숙 생활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생활 지원 주택은 뉴욕주에서 AIDS 를 퇴치하려는 주지사의 계획에서 핵심적 요소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